

## 唐代的 落第詩 연구

김동진\*

### — 목 차 —

1. 서론
2. 디지털 도구를 통한 주제 정리
  - 1) AntConc를 활용한 시어 통계 분석
  - 2) Python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3. 낙제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
  - 1) 교류를 통한 감정의 공유
  - 2) 고통의 근원을 망각
  - 3) 은거를 통한 도피
4. 낙제시의 수사적 기교
  - 1) 봄의 이미지로 儂托
  - 2) 반어법으로 불운을 부각
  - 3) 전통적 이미지를 낯설게 하기
  - 4) 합격자와의 대비
5. 결론

### 국문초록

현대인들은 시험이 일상화된 경쟁사회 속에서 분투의 삶을 살고 있다. 당나라 문인들에게도 과거시험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낙방은 학문에 쏟은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일부 문인들은 낙제로 인한 울분과 비애를 문학 창작을 통해 표출하였고, 본 논문은 그 결과물인 '낙제시'를 분석하였다. 우선,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AntConc와 Python을 활용하여 낙제시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시인들이 낙제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지 고찰하였다. 그들이 선택한 치유의 방법으로는 지인과의 감

---

\*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연구원

정 공유, 고통의 근원에 대한 망각, 그리고 전원으로의 도피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낙제시가 단순한 신세 한탄으로 비치지 않도록 시인들이 활용한 다양한 수사적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 낙제, 당시, 과거시험, 디지털, 앵트콩크, 파이썬

## 1. 서론

21세기의 사회는 이른바 적자생존의 원리가 일상화된 경쟁사회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시험’이다. 그러나 시험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입학시험, 면접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사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치르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된 평가 경험은 필연적으로 ‘시험 스트레스’<sup>1)</sup>를 야기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 동기 저하, 불안, 자기 효능감의 저하 등의 심리적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두통, 복통, 소화불량, 불면 등 신체화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sup>2)</sup> 즉, 시험을 통한 경쟁과 그로 인한 결과의 부침은 개인에게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누적시키며 삶의 행복감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시험의 문제의식은 현대 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험은 인간의 삶과 지위, 그리고 생계의 안정과 직결된 제도로서, 중국의 고대 문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당대(唐代) 문인에게 벼슬에 오르는 것은

1) 시험 스트레스: 시험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자극, 압력, 압박감을 말하고,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가리킨다. 길혜지, 김혜숙,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논총』, 제44권 제1호,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23, p.4.

2) 김순희,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동서정신과학』, 제21권 제1호,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8, p.74.

출세의 길이자 자신의 학문과 재능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이에 다수의 문인이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의 문은 결코 평등하게 열려 있지 않았다. 비록 육조 시기와 달리 귀족 출신이 아니어도 관직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추천과 행권(行卷), 그리고 시험관이 시험 전에 합격자를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이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3)</sup> 채점 과정에서 응시자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았으며,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세습할 수 있는 '문음(門蔭)' 제도 역시 잔존하였다.<sup>4)</sup> 이로 인해 과거제도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낙제한 문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시(詩)를 통해 표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낙방의 울분과 비애를 노래한 작품 중, 시의 제목이나 본문에 '落第', '下第', '不第', '點額', '清瀾' 등의 어휘<sup>5)</sup>가 사용된 작품을 '낙제시(落第詩)'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시기를 당대로 한정하는 이유는, 당대의 과거제도가 이후 시대에 비해 제도적 완성도가 낮았던 만큼 낙제한 시인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더욱 강렬하게 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제시는 당대 문인의 감정 구조와 현실 인식, 나아가 그들의 문학적 자의식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로 기능한다.

당대 문학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회재불우(懷才不遇)'의 비애는 당시 문인 정서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감정이다. 과거시험의 낙방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재능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제시는 문인이 처음으로 '회재불우'를 체감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주요 계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낙제시의 심층적 분석은 당대 시가에 빈번히 나타나는 좌절, 불우, 자성의 정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낙제시의 주요 내용과 정서를 체계적으

3) 吳宗國, 『唐代科舉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0, p.194.

4) 吳宗國, 『唐代科舉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0, p.13.

5) 낙제를 나타내는 어휘로 '落榜', '落科', '孫山外', '飲墨' 등도 있으나, 해당 시어들은 당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낙제의 수심을 달래기 위해 동원된 방법을 규명한다. 아울러 출세 욕망이라는 속된 감정을 완곡하게 형상화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의 표현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고찰한다.

낙제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정 부분 축적되어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黃榮煌의 「唐代落第詩的創作主體研究」<sup>6)</sup>, 陳雪軍의 「唐代落第詩探微」<sup>7)</sup>, 韓愛平的 「生命的吶喊, 強者的抗爭——由羅隱“十上不第”看他的落第詩」<sup>8)</sup> 등은 주로 시대적 배경과 시인의 신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낙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즉, 시 자체의 문학적 구조나 표현 미학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또한, 滕雲의 「從唐代落第詩看落第舉子對科舉的懷疑與反思」<sup>9)</sup> 역시 낙제시가 아니라 역사적 문헌을 분석 대상이나 주장의 근거로 삼아 시의 내적 분석보다는 제도사적(制度史的) 논의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李精一의 「唐代落第詩所反映的士人情感特質」<sup>10)</sup>, 程瑞麗의 「唐代落第詩中的送別情」<sup>11)</sup>, 沈文雪的 「唐代落第詩折射的士文化心態」<sup>12)</sup>, 劉鑫·李瑞傑의 「略論晚唐詩人趙嘏的落第詩」<sup>13)</sup>, 焦妍의 「論唐代落第詩與文人心態」<sup>14)</sup>,

6) 黃榮煌, 「唐代落第詩的創作主體研究」, 『柳州師專學報』, 第27卷 第6期, 柳州師範高等專科學校, 2012, pp.17-20.

7) 陳雪軍, 「唐代落第詩探微」, 『船山學刊』, 第2期, 湖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7, pp.149-151.

8) 韓愛平, 「生命的吶喊, 強者的抗爭——由羅隱“十上不第”看他的落第詩」, 『焦作大學學報』, 第2期, 焦作大學, 2001, pp.7-9.

9) 滕雲, 「從唐代落第詩看落第舉子對科舉的懷疑與反思」, 『學術交流』, 第6期, 黑龍江省社會科學信息中心, 2012, pp.160-164.

10) 李精一, 「唐代落第詩所反映的士人情感特質」, 『學術交流』, 第6期, 黑龍江省社會科學信息中心, 2005, pp.143-146.

11) 程瑞麗, 「唐代落第詩中的送別情」, 『鷄西大學學報』, 第15卷 第2期, 鷄西大學, 2015, pp.129-131.

12) 沈文雪, 「唐代落第詩折射的士文化心態」, 『鄭州大學學報』, 第36卷 第5期, 鄭州大學, 2003, pp.104-107.

13) 劉鑫, 李瑞傑, 「略論晚唐詩人趙嘏的落第詩」, 『大眾文藝』, 第21期, 陝西師範大學, 2010, pp.156-157.

14) 焦妍, 「論唐代落第詩與文人心態」, 『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 第6期, 廣東技術師範學院, 2016, pp.68-75.

李德斌의 「士子の失志情懷與唐代“落第詩”」<sup>15)</sup> 등의 연구 또한 시인의 감정과 주제를 분류하는 개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사적·미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그 외 雷曉妍·李子廣의 「中晚唐落第詩的探花意蘊」<sup>16)</sup>과 任娟의 「咸通年間長安落第詩探析」<sup>17)</sup> 등의 연구는 장안의 낙제시나 합격자 연회를 주제로 한 제한적 분석에 머물러, 낙제시 전반의 문학적 특징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더불어 다수의 연구는 과학적 통계가 결여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낙제한 문인의 시를 연구한 학위논문으로는 우선 滕雲의 「唐代落第詩研究」<sup>18)</sup>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낙제 시인들의 심리상태를 비롯하여 낙제 이후의 행적(예컨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계속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각지를 유람하는 경우 등)과 향후 출사 성공 여부를 정리하였다. 또한 黃雲鶴의 「唐宋時期落第士人研究」<sup>19)</sup>는 낙제 선비들의 경제생활·문화생활·사회생활을 증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黃梅의 「唐代落第士人心態探析」<sup>20)</sup>은 낙제 이후 문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거, 지속적인 과거 준비 등)과 그들의 문학 활동이 사회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해당 학위논문들은 주로 낙제 문인들의 심리와 낙제 이후의 삶의 궤적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고, 낙제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된 구체적 행동 양상과 낙제시의 문학적 성취 및 예술적 표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최년균과 정환종의 『낙제생들의 노래』<sup>21)</sup>는 낙제와 관련된 시

15) 李德斌, 「士子の失志情懷與唐代“落第詩”」, 『名作欣賞: 文學研究』, 第12期, 山西出版集團, 2007, pp.9-12.

16) 雷曉妍, 李子廣, 「中晚唐落第詩的探花意蘊」, 『內蒙古電大學刊』, 第4期, 內蒙古師範大學文學院, 2015, pp.31-34.

17) 任娟, 「咸通年間長安落第詩探析」, 『景德鎮學院學報』, 第31卷 第5期, 景德鎮學院, 2016, pp.58-62.

18) 滕雲,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19) 黃雲鶴, 「唐宋時期落第士人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20) 黃梅, 「唐代落第士人心態探析」, 雲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1) 최년균, 정환종, 『낙제생들의 노래』, 월인, 2011.

200여 수를 역주한 저작으로,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내용 분석 보다 번역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되듯, 낙제시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이를 종합적이고 문학적으로 탐구한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낙제시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예술성과 사상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2. 디지털 도구를 통한 주제 정리

### 1) AntConc를 활용한 시어 통계 분석

21세기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문학 연구의 방법론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도입으로, 과거의 연구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문헌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전통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낙제시에 대한 연구는 시문을 일일이 수집하고 내용을 수작업으로 분류·통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수반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방대한 시 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코퍼스 분석 도구인 AntConc를 이용하여 낙제시의 공기어(共起語, 동일 시에서 함께 등장하는 시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낙제시의 주요 이미지와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시(漢詩)의 경우, 두 글자 단위의 시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2-gram(바이그램, bigram)’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souyun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全唐詩』에서 제목이나 본문에 ‘落第’, ‘下第’, ‘不第’, ‘黜額’, ‘清灑’ 등의 시어가 포함된 총 248수의 시이다.<sup>22)</sup> 이 시들을 AntConc에 입력하여 2-gram을 실시함으로

써, 낙제시에서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두 글자 시어, 즉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2-gram 통계

시어	횟수	시어	횟수
春風	17	惆悵	10
長安	15	芳草	9
不得	14	風塵	9
失意	14	年年	9
東歸	13	看花	8
千里	13	如何	8
歸去	12	青雲	8
何人	10	……	……

이 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시어를 13위까지 나열한 것이다.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주관적 추측에 그치지 않도록 각 시어 관련 예문을 하나씩 논거로써 제시한다.

우선 ‘春風’은 과거시험의 발표 시기가 주로 봄이었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徐夔의 「長安述懷」에는 “詞賦有名堪自負，春風落第不曾羞(시문으로 명성이 있어 스스로 자랑스러워했고, 봄바람 속에서 낙방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네).”<sup>23)</sup>라는 구절이 나타난다. 또한, ‘芳草’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풍경을 묘사함과 동시에, 낙제한 시인의 절망감을 대비적으로 부각한다. 杜荀鶴의 「下第東歸別友人」 중 “芳草緣流水，殘花向夕陽(“향기로운 풀은 시냇가를 따라 자라 있지만, 시든 꽃은 석양을 향하고 있네).”<sup>24)</sup>가 그 대표적 예이다.

22) ‘落第’, ‘下第’, ‘不第’, ‘黜額’, ‘清瀾’ 등 어휘 외의 표현을 사용하여 낙제를 언급한 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248편의 시가 낙제시를 모두 망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른 방법으로 낙제를 묘사하는 시를 발견하면 통계에 반영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23) 『全唐詩』, 卷709\_8.

‘靑雲’은 출세의 염원, 즉 청운지지(靑雲之志)를 상징하며, 낙제의 좌절과 맞물려 자주 사용된다. 錢起의 「下第題長安客舍」의 “不遂靑雲望, 愁看黃鳥飛(청운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시름에 잠겨 피꼬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네).”<sup>25)</sup>는 이를 잘 보여준다. ‘不得’은 귀향의 불가나 낙방의 무력함을 드러낼 때 주로 등장한다. 鄭谷의 「悶題」 중 “荊山歸不得, 歸得亦無家(형산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고, 설령 돌아간다 한들 집이 없네).”<sup>26)</sup>이 그 예이다.

‘失意’와 ‘惆悵’은 낙제한 시인의 실의와 비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盧綸의 「送潘述應宏詞下第歸江南」에는 “感年懷闕久, 失意夢鄉多(세월을 느끼며 궁궐을 그리워한 지 오래고, 낙담하여 고향을 꿈꾸는 일이 많네).”<sup>27)</sup>라 하였으며, 羅鄴의 「下第」 중 “此時惆悵便堪老, 何用人間歲月催(이 순간의 슬픔만으로도 늙을 것 같으니, 어찌 인간 세상의 세월이 나를 재촉할 필요가 있겠는가).”<sup>28)</sup>에서도 같은 정서가 확인된다. ‘年年(해마다)’이라는 반복적 시어는 이들의 절망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임을 시사한다. 胡曾의 「詠史詩·下第」에서 “上林新桂年年發, 不許平人折一枝(상림원에서는 매년 새 계수나무가 자라지만<sup>29)</sup>, 일반인은 가지 하나조차 꺾을 수 없네).”<sup>30)</sup>라는 구절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長安’은 시험의 무대이자 출세의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낙제한 시인에게는 좌절과 허무의 장소로 변모한다. 張蠟의 「下第述懷」 중 “十載長安跡未安, 杏花還是看人看(장안에 십 년을 머물렀으나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살구꽃은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만 구경하네).”<sup>31)</sup>이라는 구절이 이를 잘 드러낸다. 결국 시인은 장안을 떠나 귀향을 결심하며, ‘東歸’, ‘歸去’ 등의 시어로 그

24) 『全唐詩』, 卷691\_91.

25) 『全唐詩』, 卷237\_31.

26) 『全唐詩』, 卷674\_4.

27) 『全唐詩』, 卷276\_8.

28) 『全唐詩』, 卷654\_48.

29)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명부인 ‘계적(桂籍)’을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30) 『全唐詩』, 卷647\_161.

31) 『全唐詩』, 卷702\_72.

결단을 표상한다. 豆盧復의 「落第歸鄉留別長安主人」의 “年年下第東歸去, 羞見長安舊主人(해마다 낙방하여 고향이 있는 동쪽으로 돌아가니, 장안의 옛 주인을 뵈기가 부끄럽네).”<sup>32)</sup>나 羅鄴의 「下第」 중 “江邊依舊空歸去, 帝里還如不到來(강가는 예전과 다름없으나 헛되이 돌아가고, 경사는 다녀왔으나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듯하네).”<sup>33)</sup>가 그 예이다.

또한 고향은 ‘千里’나 떨어진 먼 공간으로 묘사되며, 이는 그리움과 더불어 귀향의 고단함을 상징한다. ‘風塵’은 낙제 이전의 고난 혹은 귀향길의 고생을 나타내는 시어로 자주 쓰인다. 錢起의 「送鄒三落第還鄉」에 “十年失路誰知己, 千里思親獨遠歸(십 년 동안 길을 잃어 누가 나를 알아주리, 천 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홀로 먼 길을 돌아가네).”<sup>34)</sup>라 하였고, 馬戴의 「下第別鄒扶」의 “窮途別故人, 京洛泣風塵(곤궁한 처지에 벗과 헤어지고, 낙양에서 풍진을 맞으며 눈물 흘리네).”<sup>35)</sup>는 후자의 예다.

의문형 어기 ‘何人’, ‘如何’는 낙제한 시인의 무력감과 현실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何人’은 자신을 알아줄 추천인이나 시험관을, ‘如何’는 낙제한 현실에 대한 자조적 물음을 상징한다. 盧綸의 「送何召下第后歸蜀」 중 “一別金門遠, 何人復薦雄(한 번 이별하니 금마문에서 멀어지고, 누가 다시 인재를 천거 해줄까).”<sup>36)</sup>와 武元衡의 「寒食下第」 중 “如何憔悴人, 對此芳菲節(어찌하여 초췌한 사람이, 이 향기롭고 화사한 계절을 마주해야 하는가).”<sup>37)</sup>가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看花’는 장안에서 합격자들이 행하던 유흥의 상징으로,<sup>38)</sup> 낙제한 시인에게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환기하는 이미지이다. 顧非熊의 「長安清明言懷」의 “客中下第逢今日, 愁裏看花厭此生(객지에서 낙제하여 오늘을 맞이하

32) 『全唐詩』, 卷203\_25.

33) 『全唐詩』, 卷654\_48.

34) 『全唐詩』, 卷236\_15.

35) 『全唐詩』, 卷555\_14.

36) 『全唐詩』, 卷280\_17.

37) 『全唐詩』, 卷317\_52.

38) 雷曉妍, 李子廣, 「中晚唐落第詩的探花意蘊」, 『內蒙古電大學刊』, 第4期, 內蒙古師範大學文學院, 2015, p.31.

고, 근심 속에서 꽃을 바라보니 삶이 싫어지네).”<sup>39)</sup>는 이러한 심정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시어 통계 분석을 통해 낙제시의 정서는 낙방의 좌절, 귀향의 결심, 현실의 원망, 그리고 세속적 소외 등의 감정적 층위로 요약될 수 있다.

## 2) Python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앞서 AntConc의 2-gram 분석을 통해 낙제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의 빈도 및 주요 내용과 정서를 파악하였다면, 이제 이를 기반으로 Python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여 낙제시의 주요 주제를 보다 정밀하게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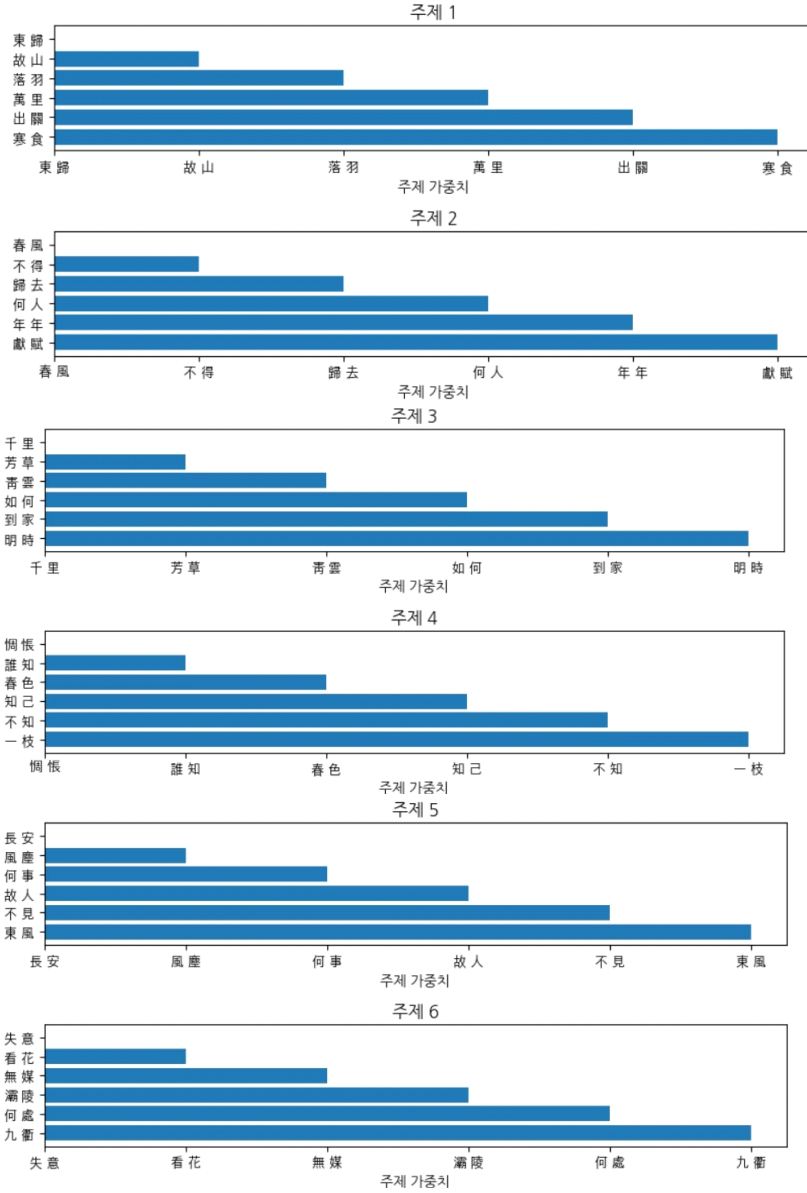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내 단어들의 동시 출현 패턴을 분석하여 잠재적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으로, 대규모 문헌의 주제적 경향을 통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의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AntConc의 2-gram 결과를 토대로 『全唐詩』 내 낙제시 248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sup>40)</sup> 그 과정에서 문서 내 주요 주제 6개를 추출하고 각 주제의 상위 단어 6개를 확인한다.<sup>41)</sup> 각 주제의 가중치, 즉 중요도는 matplotlib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 <그림1>로 도식화하였다.

39) 『全唐詩』, 卷509\_52.

40) LDA의 토픽 모델링과 matplotlib의 사용법은 김준연,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5집, 한국중국어언어문화학회, 2025, p.270을 참조.

41) 이때 추출할 주제와 상위 단어 수 6은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림1> 주제의 가중치



도출된 주제와 상위 단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낙제시는 다음과 같은 주제적 경향을 보였다.

- 주제 1: 낙제 후 실의에 빠져 떠나면 고향으로 귀향한다.
- 주제 2: 추천인이 없어 해마다 낙방하며, 고향이 그리지만 못 돌아간다.
- 주제 3: 치세(治世)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은거와 출사 사이에서 방황한다.
- 주제 4: 재능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고독과 비애를 느낀다.
- 주제 5: 낙제 이후 속세의 번잡함 속에서 친구와 이별하며 아쉬워한다 (낙방한 사람이 시인이 아니라 친구인 경우도 있다).
- 주제 6: 도성에서 합격자들은 꽃을 구경하지만, 자신은 추천인이 없어서 낙제하고 좌절한다.

이 가운데 내용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낙제시의 핵심 주제를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주제 1: 낙제하여 장안을 떠나 귀향한다.
- 주제 2: 낙제하여 귀향을 원하지만 거리가 멀어 돌아갈 수 없다.
- 주제 3: 추천인이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낙방하고, 현실에 대한 절망과 원망을 느낀다.
- 주제 4: 누차 낙제하여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 갈등한다.
- 주제 5: 낙제하여 친구와 이별하고 경사를 떠난다(혹은 낙제하여 경사를 떠나는 친구를 진송한다).

이와 같은 토픽 모델링 결과는 낙제시가 단순한 낙방의 한탄을 넘어, 당대 문인의 사회적 위치와 자아 인식, 그리고 현실 대응 양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르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위에서 도출한 주제들이 실제 시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다음 두 장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3. 낙제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

앞선 장에서 도출한 낙제시의 주요 주제와 정서적 경향을 통해, 시인들이 낙제라는 현실을 맞이하며 좌절감·패배감·박탈감·향수·부끄러움·울분·고독·이별의 아쉬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였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시인들이 선택한 방법을 고찰하고, 그 방법이 시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낙제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시적 노력은 낙제시의 지평을 확장시키며, 나아가 낙제시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sup>42)</sup>

#### 1) 교류를 통한 감정의 공유

과거시험 낙방 이후 시인들이 취한 첫 번째 심리적 대응은 교류를 통한 감정의 공유였다. 즉, 시인들은 낙제의 아픔을 혼자 감내하기보다는 지인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위로를 구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소통의 대상은 대부분 문인 출신의 친구였으므로, 상호 간의 공감과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특히 상대방 또한 낙제의 경험을 지닌 인물인 경우, 동병상련의 정서적 연대를 통해 일시적인 위안과 안도감 얻을 수 있었다.

許渾의 「下第貽友人」은 이러한 심리적 교류의 전형적 예로 꼽을 수 있다.

身在關西家洞庭,	몸은 관문 서쪽에 있으나 집은 동정호에 있고,
夜寒歌苦燭熒熒.	추운 밤에 빛나는 촛불 옆에서 괴로움을 노래하네.
人心高下月中桂,	달 속의 계수나무를 보니 마음에 기복이 생기고,
客思往來波上萍.	나그네의 그리움은 물결 위 부평초를 보니 고향을 오가네.

42) 사실 낙제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따라 붓을 버리고 종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시에 반영된 방법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馬氏識君眉最白, 그대는 마씨 집안에서 눈썹이 가장 흰 馬良과도 같고,  
 阮公留我眼長青. 阮籍처럼 항상 나를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네.  
 花前失意共寥落, 꽃 앞에서 실의에 빠져 함께 외로우니,  
 莫道東風吹酒醒.<sup>43)</sup> 봄바람이 술을 깨우게 하지 말게나.

시인은 낙제 후 떠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재능을 지녔으나 마찬가지로 낙제한 친구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술기운이 봄바람에 흩어질까 두려워하는 시인의 묘사는, 일시적 해소에 불과한 감정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교감을 통한 위로가 근본적 치유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낙제한 시인의 교류 대상이 반드시 낙방한 문인은 아니었다. 때로는 시인과 다르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도 있었는데, 馬戴의 「下第寄友人」이 바로 그 예다.

金門君待問, 그대는 금마문(金門)<sup>44)</sup>에서 왕께서 하문(下問)하시기를 기다리고,  
 石室我思歸. 나는 석실(石室)<sup>45)</sup>에 귀의하고 싶다네.  
 聖主尊黃屋, 성군께서 왕궁에 높이 계시니,  
 何人薦白衣. 누가 평민인 나를 추천하겠는가?  
 年來御溝柳, 해마다 왕궁 해자 옆의 버드나무를  
 贈別雨霏霏.<sup>46)</sup>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꺾어 드리며 이별하네.

시인은 벗에게 편지를 보내며 교감을 시도하지만, 친구가 이미 조정에 진출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신분적 거리와 자존감의 훼손을 절감한다. 벗과의 비교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빈궁함을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상처를 심화시켰다.

이처럼 지기와의 교류를 통한 정서의 공유는 일시적으로 고독을 완화하고,

43) 『全唐詩』, 卷534\_31.

44) 금마문: 궁전의 문의 이름으로, 학사들이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던 장소였다.

45) 석실: 책과 문서를 보관하던 곳을 가리킨다.

46) 『全唐詩』, 卷556\_11.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는 위로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불행을 근거로 자신의 고통을 상대화하는 소극적 자기 위안에 그친다. 또한 상대가 합격자인 경우, 오히려 박탈감과 열등감을 강화시켜 심리적 상처를 배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는 장기적 치유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제의 현실을 재인식하게 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고통의 근원을 망각

낙제의 심리적 상처를 덜기 위한 두 번째 방식은 망각을 통해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낙제 시인들에게 고통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과거시험의 낙방이라는 객관적 사실, 둘째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리적 욕망이다. 따라서 이들은 시험 낙방의 현실을 잊거나, 출세 욕 자체를 단절함으로써 심리적 평정을 얻고자 하였다.

이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망각의 수단은 ‘술(酒)’이었다. 羅鄴의 「下第」가 그 대표적 예다.

謾把青春酒一杯,	헛되이 봄(젊음)의 술 한 잔을 들어 보지만,
愁襟未信酒能開.	근심 가득한 마음은 술로 풀릴 것 같지 않네.
江邊依舊空歸去,	옛 모습 그대로 강가로 허무하게 돌아가고,
帝里還如不到來.	도성은 아직도 안 다녀왔을 때와 같네.
門掩殘陽鳴鳥雀,	문은 저무는 해를 가리고 새들은 지저귀며,
花飛何處好池臺.	꽃이 날리는데 근사한 연못과 누대는 어디 있는가?
此時惆悵便堪老,	이 순간의 슬픔만으로도 늙을 것 같은데,
何用人間歲月催. <sup>47)</sup>	어찌 인간 세상의 세월도 재촉하는가?

이 시가 강조하는 핵심은 시인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낙방한 시인은 이전과 다름없이 비천한 신분에서 머문 채 옛 거처

47) 『全唐詩』, 卷654\_48.

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급제하지 못함으로써 도성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 역시 과거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도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타지로 남는다. 술을 마시기 전과 후의 근심 또한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을 들 수밖에 없다. 이 행위 속에서 시인의 무력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술을 통해 낙방의 슬픔을 잊고자 하지만, 그 시도는 끝내 실패로 귀결된다. 젊음과 세월, 그리고 노력을 바쳤음에도 변하지 않은 신분, 술의 힘을 빌려도 해소되지 않는 수심의 깊이는 ‘불변’의 정서로 집약된다.

또한 일부 시인들은 과거시험 응시의 동기가 국가적 이상 실현이 아닌 개인적 영달에 있었음을 자각하고, 공명(功名)의 욕구 자체를 잊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다. 馬戴의 「下第再過崔邵池陽居」는 이를 잘 보여준다.

豈無故鄉路,	어찌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없겠는가?
路遠未成歸.	길이 멀어 아직 돌아가지 못하였네.
關內相知少,	관내에는 지인이 적고,
海邊來信稀.	바닷가에는 편지가 적네.
離雲空石穴,	떠나는 구름은 바위 구멍을 비우고,
芳草偃郊扉.	향기로운 풀은 교외의 문을 향해 기우네.
謝子一留宿,	하루 머물게 해주는 그대에게 감사하고,
此心聊息機. <sup>48)</sup>	잠시 공리를 좇는 이 마음을 잊네.

시인은 귀향조차 어려운 처지를 한탄하면서, 외로움과 떠도는 신세로 인한 피로를 토로한다. 친구의 배려로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하자 공명에 대한 욕심을 잊게 되지만, ‘聊(잠시)’라는 시어가 암시하듯 이 평온은 일시적이다. 시인은 여전히 출사의 뜻을 품고 있으며, 공리의 욕망, 즉 ‘기심(機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처럼 낙제시에서의 망각은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 도피에 불과하다. 李白이 「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에서 “舉杯銷愁愁更愁(잔을 들어 수

48) 『全唐詩』, 卷555\_10.

심을 달래려 하나, 도리어 수심이 깊어지네)”라고 읊었듯이, 음주나 도피는 결국 현실의 재인식과 함께 더 큰 좌절로 귀결된다. 또한 과거시험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려는 지식인의 사명감과 자아실현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내 망각을 통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 3) 은거를 통한 도피

낙제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속세로부터의 이탈, 즉 은거였다.<sup>49)</sup> 당대에는 은거가 벼슬로 나아가기 위한 우회로인 ‘종남첩경(終南捷徑)’으로 기능하기도 하여 과거시험에 은자(隱者) 전형이 마련되었다.<sup>50)</sup> 이에 따라 진정한 은자뿐 아니라, 명성을 쌓으려는 거짓 은자도 존재하였다. 일부 낙제한 시인들 역시 경쟁에서 밀려난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원을 동경하는 척 묘사하거나, 명리를 추구하는 속세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曹鄴의 「山中效陶」는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한다.

落第非有罪,	낙제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니,
茲山聊歸止.	이 산에 잠시 돌아와 머무르네.
山猿隔雲往,	산 원숭이 구름 너머에 살고,
共飲山中水.	함께 산속의 물을 마시네.
讀書時有興,	책을 읽다가 때때로 흥이 일어나고,
坐石忘却起.	바위에 앉아 일어나는 것을 잊네.
西山忽然暮,	서산에 갑자기 해가 저물고,
往往遺巾履.	자주 두건과 신발을 잃어버리네.
經時一出門,	오랜만에 한 번 외출하니,
兼候僮僕喜.	기다리던 시종도 기뻐하네.
常被山翁笑,	산속 노인이 자주 비웃네,
求名豈如此.	“명성을 추구하면서 어찌 이르고 있느냐”며.

49) 滕雲,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p.171.

50) 李紅霞, 張彩紅, 「論科舉對唐代隱逸風尚興盛的影響」, 『重慶工商大學學報』, 第21卷 第2期, 重慶工商大學, 2004, p.100.

齒髮老未衰, “나이는 들었으나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尙如且求己.<sup>51)</sup> 먼저 자신의 수양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며.

시인은 도연명을 모방하여 자연과 교유하는 전원생활을 묘사하며, 속세의 명리를 부질없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聊(잠시)’라는 어휘와 노인의 입을 빌려 드러낸 출사의 의지는, 그의 은거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을 암시한다. 즉, 시인은 도연명의 고결한 초탈을 흉내 내며 낙제의 아픔을 완화하려 했지만, 여전히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은거의 무의미함을 보다 직설적으로 드러낸 예로 鄭谷의 「下第退居二首」其一을 들 수 있다.

年來還未上丹梯, 새해가 왔으나 여전히 합격하지 못하고,  
 且著漁蓑謝故溪. 잠시 어부의 도롱이를 입고 옛 시내에 사죄하네.  
 落盡梨花春又了, 배꽃이 다 지고 봄이 또 끝나가니,  
 破籬殘雨晚鶯啼.<sup>52)</sup> 무너진 울타리에 남은 비가 내리고 밤에 피꼬리가  
 우네.

시인은 반복된 낙제 끝에 전원으로 물러나지만, ‘還(아직)’과 ‘且(잠시)’ 등의 표현을 통해 여전히 출사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무너진 울타리는 곤궁한 생활을 상징하고, 쓸쓸한 비와 새의 울음은 전원의 고요함과 쓸쓸함을 부각한다. 이들은 함께 전원을 낙제의 결과로 선택한 비자발적 은거의 장소, 즉 패배의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결국 낙제한 시인들에게 전원은 안식처가 아니라 일시적 피난처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속세를 초월하려는 자기암시를 반복하였으나, 내면의 공명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은거를 통한 정신적 치유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51) 『全唐詩』, 卷593\_34.

52) 『全唐詩』, 卷675\_33.

## 4. 낙제시의 수사적 기교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제시는 ‘낙제’라는 주제적 한계로 인해 대체로 암울한 분위기와 부정적 정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들은 자칫 독자에게 단순한 신세 한탄의 감정 발산으로 비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인이 낙제라는 현실적 비극을 주제로 하면서도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을 넘어 수사적 장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낙제시에서 발견되는 주요 수사적 기교와 그 효과를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 1) 봄의 이미지로 儻托

당대의 과거시험 합격자 발표는 일반적으로 음력 2월, 즉 봄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춘방(春榜)’이라 불렀다.<sup>53)</sup> 봄은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로, 자연의 회생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낙제한 시인들에게 봄은 생명과 희망의 계절이 아니라, 쇠락한 자신의 인생과 유한한 생명을 역설적으로 환기시키는 잔혹한 계절로 인식되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의 순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하는 부정적 계기였다. 따라서 시인들은 자연물이 생명력을 뿜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자신의 암울한 심정이나 인생의 무상함을 부각하였다.

錢起의 「長安落第」는 이러한 정서를 잘 보여준다.

花繁柳暗九門深,	꽃은 무성하고 버드나무는 어두우며 왕궁의 문은 건고히 잠겨 있으니,
對飲悲歌淚滿襟.	대작하고 슬프게 노래하니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數日鶯花皆落羽,	며칠간 피꼬리가 울고 꽃이 피나 모두 실의를 털 수

53) 吳宗國, 『唐代科舉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0, p.54.

없고,  
一回春至一傷心,<sup>54)</sup> 봄이 한 번 오면 마음이 한 번 아프네.

만개한 꽃과 버드나무의 그늘은 표면적으로는 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지만, 시인에게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존재로 변한다. 시인은 왕궁의 대문을 가로막는 꽃과 버드나무를 묘사하여, 출세의 불가능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즐겁게 우는 피꼬리조차 시인의 귀에는 독처럼 들리고, 봄이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고통은 반복된 낙제의 경험을 암시한다. 봄의 환희와 자신의 절망을 대비시킴으로써, 시인은 인생의 허무와 세월의 무상함을 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施肩吾의 「下第春遊」도 봄의 풍경을 통해 비애를 강화한다.

羈情含蘂復含辛, 나그네의 마음은 쓰면서 신산(辛酸)하고,  
淚眼看花只似塵. 눈물 흘리는 눈으로 꽃을 보니 그저 먼지 같네.  
天遣春風領春色, 하늘은 봄의 풍광을 가져오도록 봄바람을 보냈으나,  
不教分付與愁人.<sup>55)</sup> 근심이 가득한 이에게 가져다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네.

시인은 낙제 후 나그네 신세로 전락하여, 봄꽃을 감상하는 것이 합격자의 특권이 되었음을 인식한다. 그에게 만발한 꽃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먼지처럼 덧없는 존재다. 시인은 봄의 찬란함을 오히려 잿빛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절망과 상실을 극대화한다. 특히 수심을 자극하는 봄바람을 닦하는 표현은 생명력의 상징인 봄이 오히려 상춘(傷春)의 매개체로 전도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봄은 더 이상 재생의 계절이 아니라, 죽음과 좌절을 환기하는 비극의 계절로 변형되어 시인의 실망감과 비애를 배가시킨다.

54) 『全唐詩』, 卷239\_102.

55) 『全唐詩』, 卷494\_166.

## 2) 반어법으로 불운을 부각

당대의 과거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인재 등용의 공정한 절차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인맥에 따라 불공정한 운영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일부 낙제 시인들은 제도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반어적 수사를 통해 그 부조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이 태평성대의 현군 아래 살고 있고, 시험관 또한 공명정대하다고 언급하였다. 겉으로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책하지만, 실상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였다. 또한 자신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낙제한 것처럼 묘사하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그려내었다. 이로써 자신이 느꼈던 박탈감과 울분을 부각하였다.

杜荀鶴의 「下第投所知」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若以名場內,	과거시험장에서(응시자 중에서)
誰無一軸詩.	시 한 권을 짓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縱饒生白髮,	설령 흰머리가 나더라도,
豈敢怨明時.	어찌 감히 치세를 원망하겠는가?
知己雖然切,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나,
春官未必私.	시험관이 반드시 날 편애한다는 보장은 없네.
寧教讀書眼,	어찌 책을 읽는 눈이,
不有看花期. <sup>56)</sup>	꽃을 구경하는 시기 <sup>57)</sup> 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는가?

시인은 시험장의 모든 응시자가 시 한 권을 지을 만한 재능을 지녔다고 언급하여, 자신 역시 그들과 대등한 능력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제한 자신의 처지를 “현군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으므로 원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반어법이다. 표면적으로는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만, 시험관을 언급하였으므로, 내면적으로는 시험관이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공정하지 않은 시험 제도와 권력 구조에 대한 불만을 내포하고

56) 『全唐詩』, 卷691\_59.

57) 과거에 급제한 합격자들이 장안에 함께 모여 꽃을 구경하는 풍습을 가리킨다.

있다. 즉 그는 자신의 낙제가 불공평한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박탈감과 분노를 정교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潘唐의 「下第歸宜春酬黃頗餞別」 또한 반어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聖代澄清雨露均, 獨懷惆悵出咸秦. 承明未薦相如賦, 故國猶慚季子貧.	태평성대의 비와 이슬은 맑고 균등하게 내리는데, 나 홀로 슬픈 마음을 품고 장안 밖으로 나오네. 조정에는 司馬相如 같은 내 글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고, 고향에서는 여전히 蘇秦처럼 가난하다고 부끄럽게 여기네.
御苑鐘聲臨遠水, 都門樹色背行塵. 一從此地曾攜手, 益羨江頭桃李春. <sup>58)</sup>	왕궁 정원의 종소리가 강물 멀리서 들리고, 성문의 나무들은 여정의 먼지를 뒤집어췌네. 이곳에서 과거에 함께 손을 잡았던 것을 생각하니, 봄을 맞이한 강가의 복숭아와 자두가 더욱 부럽네.

시인은 “은혜의 비가 만민에게 고르게 내린다”고 노래하지만, 유독 자신만 그 비를 맞지 못한 채 낙제하여 장안을 떠난다. 복숭아와 자두는 추천인을 통해 합격한 수험생을 상징하며, 그 나무들이 맞은 ‘비’는 명예와 은총을 상징한다. 이처럼 시인은 임금의 은총의 비가 균등하게 내린다는 반어법을 사용해 이 비가 자신만을 비껴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자연과 세계가 자신을 적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로써 시인은 자신이 겪은 불운과 불공정한 대우를 더욱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 3) 전통적 이미지를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 빅토르 시클롭스키(Viktor Shklovsky)가 제시한 개념으로, 익숙한 사물이나 언어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문학적 수법을 의미한다.<sup>59)</sup> 낙제시에서도 시인들은 전통적으로 긍정적 의

58) 『全唐詩』, 卷562\_32.

미를 지닌 공간, 즉 정치적 중심지인 장안과 정서적 안식처인 고향을 부정적 공간으로 전도시켜 자신이 처한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하였다.

常建의 「落第長安」은 고향의 이미지를 낯설게 변형한 대표적 예이다.

家園好在尙留秦, 고향은 잘 있지만 여전히 진(秦) 땅에 머무르고,  
 耻作明時失路人. 치세에 뜻을 못 이룬 사람인 것이 부끄럽네.  
 恐逢故里鶯花笑, 고향에서 나를 비웃는 피꼬리와 꽃을 만날까 두려워,  
 且向長安度一春.<sup>60)</sup> 잠시 장안에서 봄을 지내려 하네.

전통적으로 고향은 포근한 귀소(歸巢)의 장소이자 심리적 안정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인에게 고향은 더 이상 위로의 공간이 아니다. 고향의 피꼬리와 꽃은 자신을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환기하는 존재로 변한다. 시인은 늘 자신을 감싸주던 고향을 자신을 배척하는 낯선 공간으로 묘사함으로써, 고립과 좌절의 정서를 극대화하였다.

薛能的 「下第後春日長安寓居三首」其三에서도 친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關東歸不得, 관동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豈是愛他鄉. 어찌 타향을 좋아하기 때문이겠는가?  
 草碧餘花落, 풀은 푸르고 남은 꽃은 지며,  
 春閑白日長. 봄은 한가롭고 낮은 기네.  
 全家期聖澤, 온 가족이 내가 임금의 은택을 받기를 기대하니,  
 半路敢農桑. 어찌 감히 중도에 농업이나 양잠업에 종사하겠는가?  
 獨立應無侶, 외로이 서니 동료가 없고,  
 浮生欲自傷.<sup>61)</sup> 떠다니는 삶에 스스로 슬퍼지네.

59) M. H. Abrams, Geoffrey Galt Harpham,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Cengage, 2017, p.142.

60) 『全唐詩』, 卷144\_44.

61) 『全唐詩』, 卷558\_27.

장안은 본래 영예와 기회의 상징이었으나, 낙제한 시인에게는 이제 떠나야 할 이방의 도시로 전락하였다. 반면 귀향해야 할 고향마저도 가족과 친척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억압의 공간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시인은 귀향하지 못하고 외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하였다. 즉 시인은 장안에서도, 고향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무소속의 존재로서의 고독을 감내하였다. 이처럼 장안과 고향이라는 전통적 공간의 전도는, 낙제가 시인에게 초래한 소외의 정조와 절망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 4) 합격자와의 대비

낙제의 마지막 주요 수사법은 대비법이다. 낙제한 시인들은 자신과 달리 급제하여 출세한 인물들을 대비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곤궁한 생활, 무기력한 일상 등을 여실히 그려냈고, 합격자와 비교함으로써 박탈감이나 부러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였다.

馬戴의 「下第別令狐員外」는 대비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論文期雨夜,	비 내리는 밤에 만나 글을 논하고,
飲酒及芳晨.	아침까지 술을 마시네.
坐歎百花發,	앉아서 온갖 꽃이 피는 것을 탄식하고,
潛驚雙鬢新.	양쪽 귀밑머리가 새로 센 것에 몰래 놀라네.
舊交多得路,	오랜 친구 중에 뜻을 이룬 자가 많으나,
別業遠仍貧.	별장은 멀고 아직은 가난하네.
便欲辭知己,	그래서 지기와 작별하고,
歸耕海上春. <sup>62)</sup>	봄의 바닷가로 돌아가 경작하려고 하네.

시인은 봄날의 만개한 꽃과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 자신의 모습을 대조시켰다. 즉 생명력과 쇠락, 청춘과 노년의 대비를 통해 세월의 무상함을 부각한

62) 『全唐詩』, 卷556\_42.

것이다. 이어서 급제하여 영화를 누리는 친구들과 낙제한 자신의 처지도 대비시킨다. 많은 친구가 출세하였는데 시인은 여전히 가난하였다. 게다가 장안에 머물러 벼슬할 수 있는 친구들과 달리, 시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종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였다. 이러한 ‘사(仕)와 농(農)’, ‘근(近)과 원(遠)’(장안과의 거리)의 대비는 시인의 패배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杜荀鶴의 「下第出關投鄭拾遺」 역시 대비법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丹霄桂有枝,	조정의 계수나무의 가지가 꺾이지 않았다면
未折未爲遲.	늦은 것이 아니네.
況是孤寒士,	게다가 비천한 선비라서
兼行苦澀詩.	쓰고 괴로운 시를 짓네.
杏園人醉日,	합격자들이 살구나무 정원 <sup>63)</sup> 에서 취하는 날은,
關路獨歸時.	내가 관문 밖의 귀향길에 오를 때라네.
更卜深知意,	잘 아는 그대의 의중을 짐쳐서,
將來擬薦誰. <sup>64)</sup>	장래에 누굴 추천할지 헤아리고자 하네.

시인은 합격자들이 장안의 정원에서 술을 즐기는 장면을 묘사하며, 동시에 자신이 홀로 관문을 나서 귀향해야 하는 현실을 병치한다. 동일한 시간대에 상반된 공간과 행위를 대비시킴으로써, 시인은 성공과 실패의 확연한 차이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낙제자의 고독과 자괴감, 박탈감과 부러움을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한다.

63) ‘살구나무 정원’을 의미하는 행원(杏園)은 본래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의 대안탑(大雁塔) 남쪽에 위치했던 정원의 이름으로, 과거시험 합격자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던 장소였다. 후대에는 과거시험 합격자들의 축하연 장소를 총괄하여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64) 『全唐詩』, 卷691\_72.

## 5. 결론

본고는 당대 시인들이 낙제로 인한 울분과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한 시 가운데 ‘落第’, ‘下第’, ‘不第’, ‘點額’, ‘清灑’ 등의 시어가 포함된 작품, 이른바 ‘낙제시’를 대상으로 그 문학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낙제시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통계적으로 추출하고, 낙제가 초래한 수심을 완화하기 위해 시인들이 선택한 대응 양상을 탐색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이 그러한 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구사한 수사적 기교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AntConc와 Python을 활용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낙제시의 주요 정서와 주제적 경향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낙제 시인들은 과거시험 낙방으로 인한 실의와 좌절을 중심 정서로 삼았으며, 장안을 떠나 먼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허무와 고독을 시화하였다. 합격자 발표가 봄철에 이루어지는 현실은 시인들의 비애를 더욱 심화시켰고, 봄의 생명력 넘치는 풍경은 오히려 자신의 무력감과 인생의 유한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추천인을 얻지 못해 거듭 낙방하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은 낙제의 사회적·심리적 상흔을 드러낸다. 또한, 유능한 군주가 재위하는 태평성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합격자들이 누리는 사회적 성공과 자신이 겪는 박탈감,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비통이 시 전반에 투영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낙제가 야기한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시인들이 선택한 감정 해소의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주로 교류, 망각, 은거의 방법을 통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들은 공통적으로 현실 도피적 성격을 지녔으며 근본적 치유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교류는 동병상련의 정서를 나누는 위안이 되었으나, 동시에 비교의식으로 인한 새로운 상처를 낳았고, 망각은 일시적인 해방에 그쳤다. 은거는 초탈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패배의 심리적 위장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시적 대응 양상은 낙제시가 단순히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좌절과 극복,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의 내적 드라마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시인들이 낙제라는 부정적 경험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구사한 수사적 기교를 분석하였다. 낙제시는 ‘실패’라는 동일 주제를 다루면서, 봄의 이미지, 반어법, 전통적 이미지를 낫설게 하기, 대비법 등 다양한 표현 전략을 통해 비애·울분·박탈감·질투심 등의 정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수사적 장치들은 낙제시를 단순한 감정 토로의 산물이 아니라, 비극적 현실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문학적 작품으로 격상시켰다.

고대 문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만족스러운 관직에서 포부를 펼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공통된 이상이였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문인의 처지를 일컫는 개념이 바로 회재불우이며, 이는 중국 문학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불평즉명(不平則鳴)’과 ‘궁이후공(窮而後工)’의 문학관이 보여주듯, 회재불우는 시뿐 아니라 모든 문체에서 중요한 문학적 원리로 작용하였다. 낙제는 바로 이 회재불우의 정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낙제시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중국 고전문학의 핵심 주제인 회재불우의 사상과 정서를 구체적 텍스트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 학문 전반에 확산되는 현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접목한 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통적 고전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학제 간 융합 연구의 실질적 사례로 기능한다. 또한 현대 사회 역시 ‘시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많은 ‘낙제’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인간 경험의 정서적 공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끝으로, 당대는 과거제도가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낙제 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두드러졌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제도의 결함이 점차 보완되거나, 왕조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과거제도의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 특히 원대(元代)나 청대(清代)처럼 이민족 왕조 하에서의 출사는 당대의 출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며, 그에 따라 낙제의 경험 역시 상이한 문학적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낙제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대 왕조의 낙제시를 추가로 분석하여, 시대별 제도 변화와 문인 의식의 상관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탐구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參考文獻

### <단행본>

- 최년균, 정환중, 『낙제생들의 노래』, 월인, 2011.  
 金澄坤, 『中國科舉制度通史·隋唐五代卷』, 上海人民出版社, 2015.  
 彭定求 等, 『全唐詩』, 上海古籍出版社, 1996.  
 吳宗國, 『唐代科舉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0.  
 M. H. Abrams, Geoffrey Galt Harpham,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Cengage, 2017.

### <논문>

- 길혜지, 김혜숙,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논총』, 제44권 제1호,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23.  
 김순희,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동서정신과학』, 제21권 제1호,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8.  
 김준연,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5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5.  
 陳雪軍, 「唐代落第詩探微」, 『船山學刊』, 第2期, 湖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7.  
 程瑞麗, 「唐代落第詩中的送別情」, 『鷄西大學學報』, 第15卷 第2期, 鷄西大學, 2015.  
 董春偉, 敖恩, 「淺析唐代落第詩中的士子」, 『安徽文學』, 第6期, 內蒙古經貿外語職業學院, 2017.  
 韓愛平, 「生命的吶喊 強者的抗爭——由羅隱“十上不第”看他的落第詩」, 『焦作大學學報』, 第2期, 焦作大學, 2001.  
 黃梅, 「唐代落第士人心態探析」, 雲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黃榮煌, 「唐代落第詩的創作主體研究」, 『柳州師專學報』, 第27卷 第6期, 柳州師範高等專科學校, 2012.  
 黃雲鶴, 「唐宋時期落第士人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焦妍,「論唐代落第詩與文人心態」,『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第6期,廣東技術師範學院,2016.
- 雷曉妍,李子廣,「中晚唐落第詩的探花意蘊」,『內蒙古電大學刊』,第4期,內蒙古師範大學文學院,2015.
- 李德斌,「士子的失意情懷與唐代“落第詩”」,『名作欣賞:文學研究』,第12期,山西出版集團,2007.
- 李紅霞,張彩紅,「論科舉對唐代隱逸風尚興盛的影響」,『重慶工商大學學報』,第21卷 第2期,重慶工商大學,2004.
- 李精一,「唐代落第詩所反映的士人情感特質」,『學術交流』,第6期,黑龍江省社會科學信息中心,2005.
- 劉鑫,李瑞傑,「略論晚唐詩人趙嘏的落第詩」,『大眾文藝』,第21期,陝西師範大學,2010.
- 任娟,「咸通年間長安落第詩探析」,『景德鎮學院學報』,第31卷 第5期,景德鎮學院,2016.
- 沈文雪,「唐代落第詩折射的士文化心態」,『鄭州大學學報』,第36卷 第5期,鄭州大學,2003.
- 滕雲,「從唐代落第詩看落第舉子對科舉的懷疑與反思」,『學術交流』,第6期,黑龍江省社會科學信息中心,2012.
- ,「唐代落第詩研究」,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8.

## Abstract

### A Study on Tang' s Poems of Examination Failure

Kim, Dong Jin

Modern people live their struggling lives in a competitive society where exams have become a daily reality. For the intellectuals of Tang Dynasty, the civil service exam was a decisive event that could shape their entire life, and those who failed were often left with despair, as if their past efforts in study had been completely denied. Some literati expressed their frustration and sorrow caused by this failure through literary creation, and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 of such expression, known as "poems of examination failure." First, using corpus analysis tools like AntConc and Python, the main contents of the poems of examination failure were briefly summarized. Next, the study explored the methods poets used to alleviate the mental pain caused by their failure in the civil service exam. These methods included sharing emotions with close friends, forgetting the source of their pain, and escaping to the countryside. Finally,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rhetorical devices the poets employed to prevent their poems of examination failure from being perceived as mere lamentations of their hard fate. To begin with, they highlighted their lack of vitality and their miserable condition by describing the vibrant spring. Additionally, they used irony by declaring that the era they lived in was one of good governance, criticizing the unfairness of both the social conditions and the civil service exam system. Furthermore, they transformed the traditionally positive images of the capital city and the hometown into hostile spaces, intensifying the expression of their suffering. By dramatically contrasting themselves with those who passed the exams, the poets vividly conveyed their feelings of deprivation and envy. Through these rhetorical strategies, they were able to artistically elevate the sorrow of failure and effectively evoke empathy from their readers.

**Key words** : fail, Tang poetry, civil service exam, digital, AntConc, Python.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